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4. 1. 12.(금) 07:00 ~ 2024. 1. 14.(일) 22:00
- 상담건수¹⁾: 1,638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(6명)

-프로그램명 : 「동행」 ‘붕어 할아버지의 작은 꿈’

-방송일시 : 2024. 1. 13.(토) 1TV (18:00-18:55)

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,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와 사는 한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시청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. 특히 할머니가 당뇨가 있는데, 본인도 당뇨가 있어 공감이 됐다. 어려운 서민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항상 응원하며 시청하고 있다.

○ 편성 제언(14명)

-프로그램명 : 「가요무대」

-방송일시 : 2024. 1. 13.(토) 1TV (20:05-21:00) (재)

평소 「가요무대」를 많이 좋아하고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이다. 그런데 토요일인 이날 저녁에 재방송이 편성되어, 처음에는 방송시간대가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. 토요일 저녁 8시는 가장 중요한 황금시간인데 재방송을 편성한 점이 아쉽다. 다큐멘터리 등 유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주기 바란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13건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1)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1,638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²⁾	계
816	77	-	-	745	1,638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844	516	27	-	-	251	1,638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324	1,314	-	1,638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1,296	1	122	219	1,638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가요무대」 - 편성 제언 ○ 「혼자서도 잘해요」 - 후속 방송 요청 ○ 「개그 콘서트」 - 편성 제언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광장」 - 보도 호평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동행」 - 방송 호평 <p>【연예·오락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 - 출연자 제언 ○ 「신상 출시 편스토랑」 - 출연자 제언 ○ 「더 시즌즈- 이효리의 레드카펫」 - 진행자 제언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6시 내고향」 - 「다슬기 강된장」 연락처 문의 84건 ○ 「KBS 뉴스 7」 - 「보도 제언」 43건 ○ 「가요무대」 - 「편성 제언」 35건 ○ 「KBS 뉴스 9」 - 「보도 제언」 31건 ○ 「KBS 뉴스광장」 - 「보도 제언」 29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수신기술」 문의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38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8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57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13건 ○ 「주차」 문의 4건 외 2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219건

2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편성 제안	<p>○ 「가요무대」 (14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3.(토) 1TV (20:05-21:00) (재) - 평소 「가요무대」를 많이 좋아하고 즐겨 시청하는 애청자이다. 그런데 토요일인 이날 저녁에 재방송이 편성되어, 처음에는 방송시간대가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된 줄 알고 깜짝 놀랐다. 토요일 저녁 8시는 가장 중요한 황금시간인데 재방송을 편성한 점이 아쉽다. 다큐멘터리 등 유익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후속 방송 요청	<p>○ 「혼자서도 잘해요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94. 5. 2.~2001. 4. 26. (월-목) 2TV 방송. - KBS 2TV에서 방송되었던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종영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. 봄 개편을 앞두고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. 새로운 이슬언니를 섭외해 후속 방송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p**</p>
편성 제안	<p>○ 「개그 콘서트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일) (22:25-23:45) -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본방송 편성 시간이 너무 늦어 시청하기 어렵다. 편성을 조금 앞당겨주면 좋을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
의견	세부내용
[보도]	
<p>보도 호평</p>	<p>○ 「KBS 뉴스광장」 ‘AI 로봇 입었더니…고령자도 가뿐하게 등산’(3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2.(금) 1TV (06:00-07:50) - 본인이 뇌졸중으로 다리 한 쪽을 사용하지 못한다. 그런데 이날 다리 근육의 힘을 늘려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됐다는 보도를 시청하고 반가웠다. 추후 해당 로봇이 시판되면 구매방법 등도 추가로 보도해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시사·교양]	
<p>방송 호평</p>	<p>○ 「동행」 ‘봉어 할아버지의 작은 꿈’(6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3.(토) 1TV (18:00-18:55) - 눈이 보이지 않는 할머니,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와 사는 한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시청 내내 마음이 많이 아팠다. 특히 할머니가 당뇨가 있는데, 본인도 당뇨가 있어 공감어 됐다. 어려운 서민들의 이야기가 다뤄져 항상 응원하며 시청하고 있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연예·오락]	
<p>출연자 제언</p>	<p>○ 「박원숙의 같이 삼시다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4.(일) 1TV (09:00-10:10) - 김치의 대가 강순의 명인이 출연해서 김장 비법을 전수했다. 배울 점이 많아 집중해서 시청했다.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. 자매들이 김치를 담그는 내내 대화를 나눴는데, 아무도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. 요리 중 대화를 나누려면 위생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출연자 제언	<p>○ 「신상 출시 편스토랑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TV (금) (20:30-22:00) - 평생 요리를 해왔던 사람이라 「신상출시 편스토랑」을 항상 관심 있게 시청한다. 출연자들이 다들 색다른 방식으로 요리를 잘한다. 다만 위생관념이 떨어지는 점을 고쳐주었으면 한다. 머릿수건,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, 심지어 요리 중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거나 만지는 경우가 허다하다. 보기 불편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진행자 제언	<p>○ 「더 시즌즈- 이효리의 레드카펫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. 1. 12.(금) 2TV (23:20-24:50) - 진행자 이효리 씨가 문신을 한 채 진행을 맡고 있다.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. 공영방송에 출연할 때는 문신을 가려주었으면 한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